

스몰캡

K-체외진단,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대

체외진단

체외진단(IVD)이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조직/혈액/침/소변/세포세척액 등 인체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여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예측/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체외진단 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하고 있다. Market and Markets 등에 따르면 10년간(24~34년) 연평균 2~4% 성장을 전망한다.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첫째,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단의 목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와 관련 복지비용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Well aging을 위해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둘째, 체외진단의 지속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인구의 11%(2,930만명)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국내 질병관리청의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27.5만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78.1%에 해당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국내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비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혈액, 소변, 침 등 소량의 검체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약 60~70%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체 의료비용 중 단 2%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5%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K-체외진단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확대 기대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는 Roche(스위스), Abbott(미국) 등이 있다. 리오프닝 이후 글로벌 Top tier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수를 통한 영역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 19 진단기기를 통해 빠른 개발속도 및 글로벌 판매를 경험한 바 있다.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한국은 신흥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도 좋은 위치라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글로벌 인지도는 낮다. 협업은 치킨게임이 아닌 Win-Win게임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업으로는 바디텍메드(206640)와 오상헬스케어(036220)등이 있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바디텍메드	Not Rated (M)	(M)
오상헬스케어	Not Rated (I)	(I)

1. 체외진단이란?

1)정의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 IVD)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조직/혈액/침/소변/세포 세척액 등 인체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여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예측/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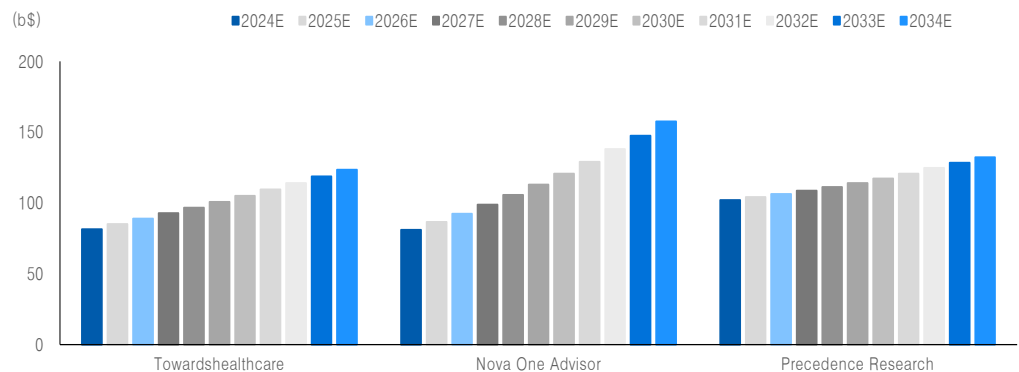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2)글로벌 체외진단의료 시장 현황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체외진단 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하고 있다. Towardshealthcare 2024년 814.7억\$에서 2023년 1,234.5억\$으로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Nova One Advisor 864.3억\$ →1,575.6억\$(+3.4%), Market and Markets 1,020.5억\$ →1,321.8억\$(+2.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체외진단 시장은 시약 및 키트, 장비(기기), SW & Service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 시약 및 키트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체외진단 시장 전망



자료: Towardshealthcare, Nova One Advisor, Market and Marke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구분

체외진단은 중앙집중식 테스트, 주변기기테스트, 분산테스트로 구분된다. 중앙집중식 테스트에는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혈액학, 지혈, 유통세포 분석, 분자진단 등이 있다. 주변기기 테스트로는 조직진단, 임상 미생물학, 소변검사 등이 있으며, 분산 테스트로는 현장진단과 자가 모니터링 혈당테스트 등이 있다.

[그림 2] 체외진단의 종류



자료: Frost&Sulliva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실체의 질병 여부를 알아보고 위한 진단은 체내진단과 체외진단으로 구분된다. 체내진단은 X-Ray, CT 등 몸 안을 살펴보면서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며 체외진단은 인체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분석한다. 정확도는 체내진단이 비교우위로 알려져 있지만, 가성비, 편의성 등에서는 체외진단이 비교우위에 있다.

1)진단의 목적 변화: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단이라는 의사가 환자가 지니고 있는 이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진단은 질병이 발생시 치료를 위한 준비였다면, 지금은 건강 이상의 확인하는 예방의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진단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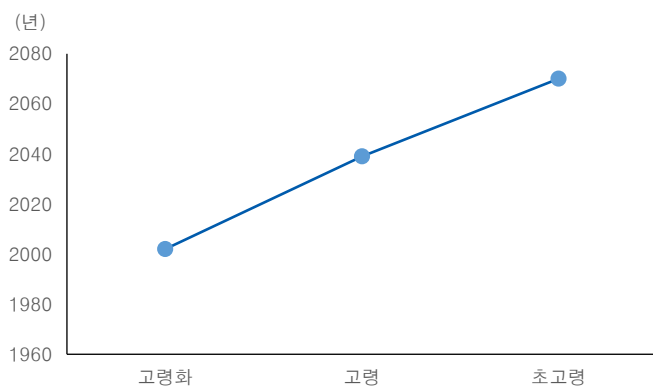
UN 경제사회국(DESA)의 2024년 세계인구전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에서 2100년 42.1세로 증가되며 평균 기대수명 역시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00년까지 전체 고령인구 중 8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23년 19.8%에서 2100년 38.9%로 19.1%p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와 관련 복지비용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Well aging을 위해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참고1. UN기준으로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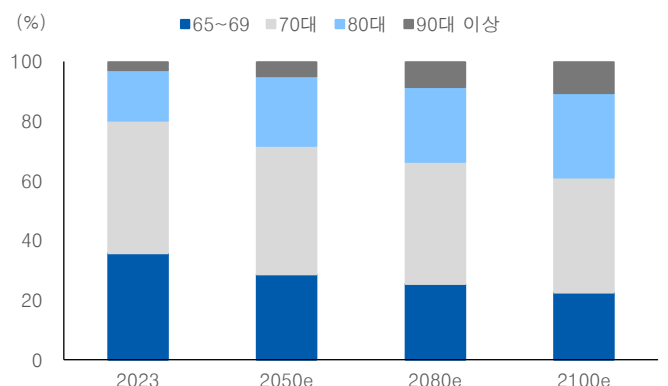
참고2. UN의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0~14세 인구는 2023년 20.2억명에서 2100년 16.8억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인구는 2023년 8.1억명에서 2100년 24.4억명으로 증가하여 64세 인구가 0~14세인구 초월

[그림 3] 글로벌 고령화 단계 진입 시점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글로벌 65세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비중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체외진단의 지속적인 수요자: 만성질환자

미국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활동 제한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오랜 기간을 통해 발병해 계속 재발하는 질환이라는 의미이다.

만성질환은 전염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질병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지속적인 체외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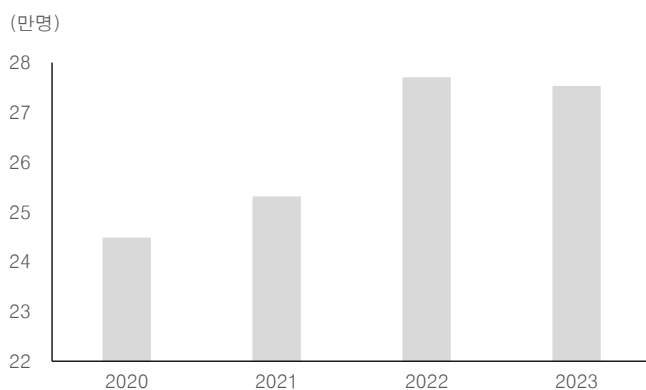
2019년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성인 10명 중 6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4명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미국 성인 인구의 11%(2,930만명)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국내 질병관리청의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27.5만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78.1%에 해당된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 등이 있다.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6개 항목(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에 달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국내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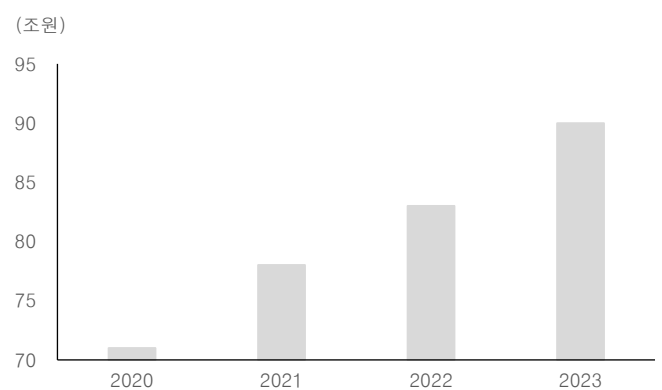
국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WHO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매년 약 4천만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70%에 해당된다.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 국내 만성질환 사망자수 연도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연도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기타: 비용 감소, 적응증 확대

비용효과.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혈액, 소변, 침 등 소량의 검체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약 60~70%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체 의료비용 중 단 2%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5%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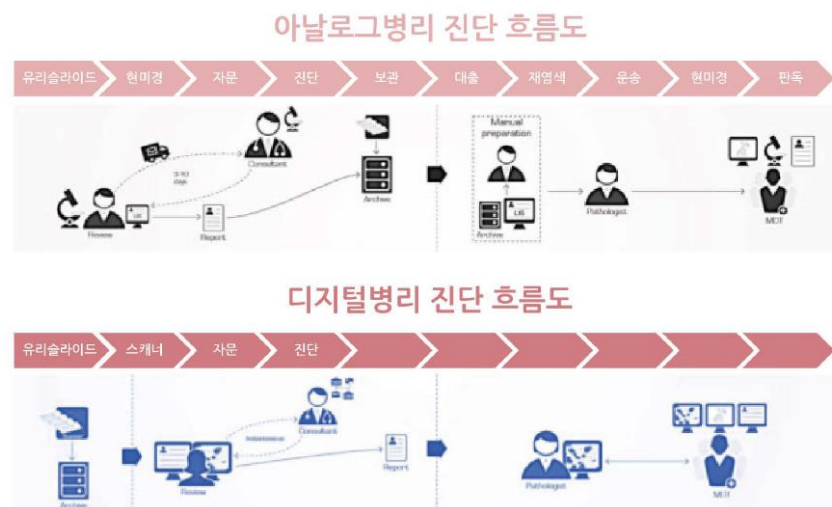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암의 정밀진단과 알츠하이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의 유전체 기반을 분석 가능, 검사결과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암 검사는 직접 종양을 떼어내 암을 진단하는 조직검사가 주를 이룬다. 혈액이나, 체액, 소변 등을 통해 진단하는 액체 생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단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에서도 체외진단이 사용되고 있다. 뇌척수액(CSF) 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여부를 위해 유일하게 활용되던 PET 검사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며,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WHO 에서 진단검사가 인류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보건위기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이식을 바탕으로 162개의 필수 체외진단 영역과 200여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Who Model List of Essential In Vitro Diagnostics 발표를 통해 진단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4) 기술의 발전

미국 원격의료 서비스는 감기, 알러지 등 가벼운 질환 치료 및 약 처방을 위한 1차 진료 뿐 아니라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원격의료 특성상 환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수행하는 체외진단키트는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 원격 의료시장 성장과 함께 폭 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그림 7] 아날로그 병리 vs. 디지털병리 진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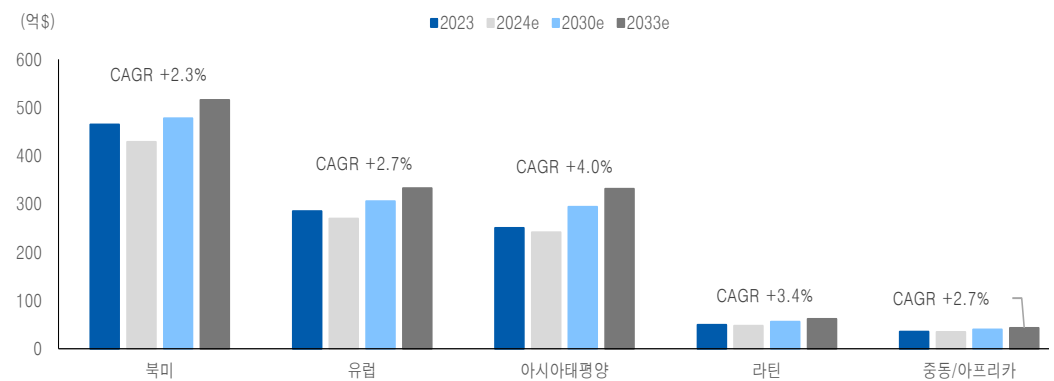
자료:메디컬타임즈-아날로그에 고립된 병리와 탈출구는 디지털병리(2019.11 월),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K-체외진단 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확대 기대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는 Roche(스위스), Abbott(미국), Siemes(독일), Thermo Fisher(미국) 등이 있다. 리오프닝 이후 글로벌 Top tier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수를 통한 영역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적응증 확대 등의 요인들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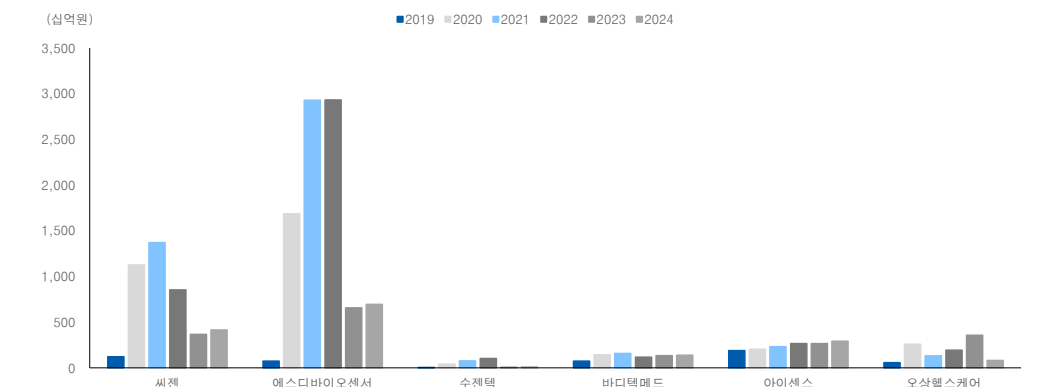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기기를 통해 조기 제품 개발 및 글로벌 판매를 경험한 바 있다.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한국은 신흥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도 좋은 위치라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K-체외진단 기업들은 글로벌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은 치킨게임이 아닌 Win-Win게임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8] 지역별 체외진단시장 시장 성장률: 선진국 < 개도국



자료: Precedence 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2019~2024)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규제 강화

유럽.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이 종전의 IVDD(IVD Directive)에서 IVDR(IVD Regulation)으로 강화되었다. 인증 적용 시점은 기존 2025년 5월 26일에서 2027년 12월 31일(Class D), 2028년 12월 31일(Class C), 2029년 12월 31일(Class B, Class A(멸균포함))으로 연장되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강화된 규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체계 변경,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강화, 임상적 근거 및 성능평가 규정 강화, 사후시장 감시 요구사항 강화, EUDAMED(의료기기 EU database) UDI/추적시스템 도입, 고위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체제 강화 등이 있다.

임상적 근거 및 성능평가 규정 강화-대부분의 지침에서는 간섭의 제어와 검출한도를 비롯한 분석 감도, 진단 감도, 분석 특이성, 진단 특이성, 정확도, 반복성, 재현성 측면의 성능을 달성해야 한다. 교정기 및 대조물질에 할당된 값의 추적성은 이용 가능한 기준 측정법 및 이용 가능한 더 높은 수준의 기준 물질을 통해 보증되어야 한다.

사후 시장 감시 요구사항 강화-사후관리 시스템이 사고감시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감시가 추가되었다. 관계 당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장비, 예방적으로 건강보호 조치로 시장을 감시하며 회원국 간의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 대비 추가적인 시간과 R&D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Top Tier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확대하거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 도래 및 필요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2020년 5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인 시행되면서 체외진단의료기기(IVD)는 일반의료기기와 별도의 관리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개인 또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4개의 등급(1~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 또는 품목에 따라 식약처의 신고, 인증, 허가의 대상으로 나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은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임상시험과는 구분된다.

2) 국내 진단업계: 어려운 미국 시장 진출 VS. 신사업 확장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2가지 방식으로 FDA인증이 필요한 체외진단기기(IVD)와 클리아(CLIA)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험실개발검사(LDT)이 존재한다.

LDT의 경우 한국진단회사가 미국의 CLIA실험실과 LDT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FDA승인없이 환자 대상으로 진단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 적용 및 미국내 타 지역 진출 등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FDA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FDA 제품 인증도 다른 나라 대비 엄격해 미국 시장은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국내 진단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다. 당시 발생된 수익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은 M&A를 통한 외형성장 및 신제품 출시를 통한 성장을 준비 중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는 2022년 3월 독일 체외진단 유통사인 베스트비온 인수(161억원), 2022년 4월 이탈리아 체외진단 유통사 리랩(Relab)을 인수(619억원), 2022년 9월 코넥스 상장기업인 유엑스엔(혈당관련 센서 개발 기업)에 지분투자(400억원), 2022년 11월 브라질 진단기업 에코디아그로스티카(Eco Diagnostica)를 인수(470억)했다. 브라질과 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 마련 목적이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체외진단 기업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Meridian Bioscience)를 인수(2조원)했다. 최근 주력인 분자진단 제품의 적응증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독감, 결핵,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7종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씨젠(096530)은 2024년 1월 IT회사 블랙스를 인수(100%), 6월에는 SW개발사 펜타웍스를 인수(100%)했다. 2025년 3월 단디메카(자동화장비 전문기업)를 인수했다. 차세대 PCR(유전자 증폭) 진단장비 개발 목적이다. 분자진단 기업으로 플랫폼 전략으로 기술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드로믹 정량 유전자증폭(PCR)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 각국 진단 업체에 무료로 제공,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바디텍메드(206640)와 오상헬스케어(036220)등이 있다. 바디텍메드는 체외진단 중 현장진단(POCT)에 필요한 진단기기 및 진단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연내 글로벌 동물약품기업과 동물진단 관련 OEM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분야에서 생화학 진단, 면역진단, 분자 진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Allez Health(美)는 현재 혈당측정기 업계 1위 기업 텍스컴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약 6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이다. Allez Health는 현재 CGM(연속혈당측정기)을 개발 중이며, 2026년 FDA승인, 2027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정책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

체외진단과 관련된 내용은 제품 개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①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 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②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다양한 해외 질병 검체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하며, 국가 주도 성능센터를 구축, 제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을 추진하여 체외진단 분야 임상지원 및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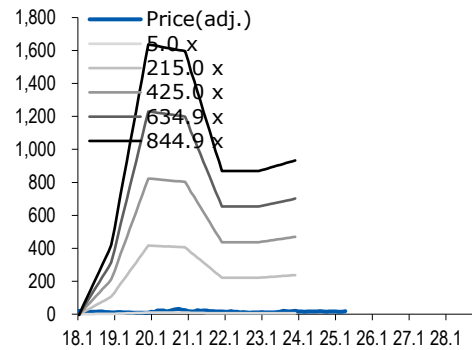
[그림 10]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12대 중점 추진 과제

주요 과제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 과제		
	연구 개발 (R&D)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 전략적 R&D 투자 확대		
		①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 확대로 초격차 확보	②유망분야 신기술 투자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	③공약적 투자로 초고령화 대응 및 보건안보 확립
	임상 실증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①혁신의료기술 의료 현장 임상실증 연구 활성화	②디지털헬스 신기술 실증데이터 구축 집중 지원	③체외진단 분야 임상지원 및 품질 향상 기반 마련
	시장 진출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		
		①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	②의료기기산업 시장진출 종합지원 고도화	③투자유치·금융지원·사업화 강화
	제도/ 혁신 생태계	혁신기술 시장진입 규제합리화 및 생태계 조성		
		①혁신적 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 촉진	②도전적 산업생태계 조성	③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료: 보건복지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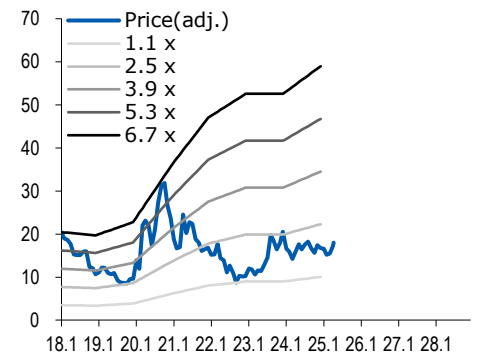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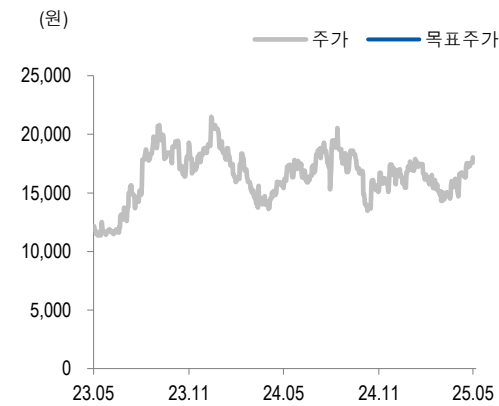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바디텍메드 (206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5-08	Not Rated	-	1년		
2025-04-24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4-08-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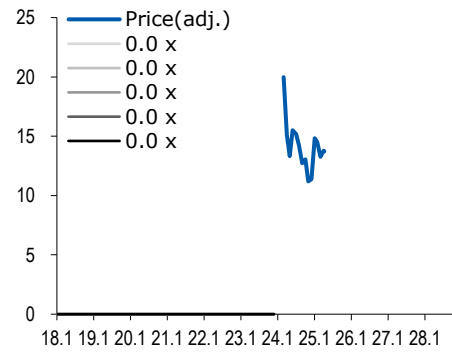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7
Hold(중립)	6.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5-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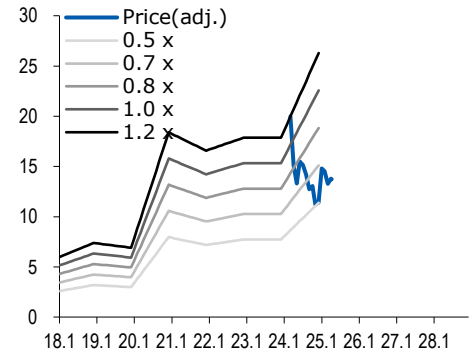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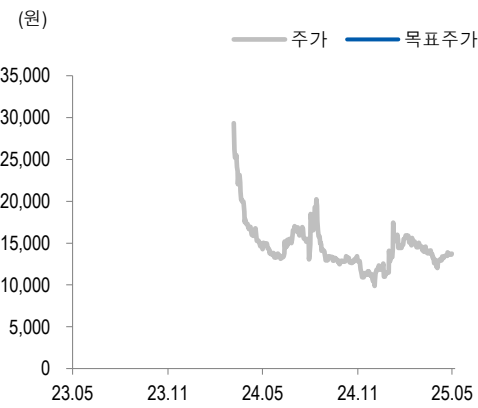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오상헬스케어 (0362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5-0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7
Hold(중립)	6.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5-07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